

『東醫壽世保元·辛丑本』 소양인 형방도적산에 관한 문헌적 연구

하진호 · 서은희 · 이정환 · 구덕모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Soyangin Hyungbangdojok-san on the 『Dongyisebowon · Shinchukbon』

Ha Jin-Ho, Seo Eun-Hee, Lee Jung-Hwan, Goo Deok-Mo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is purposed to distinct of Soyangin Hyungbangdojok-san on the 『Dongyisebowon · Shinchukbon』 through compare with early medical books prescription and early dongmu's books prescription

2. Methods

This study is research to use of dojok-san in early medical books and Dongmu's books. so the process of Hyungbangdojok-san formation is knowed

3. Result and conclusions

- 1) Early dojok-san is mostly used in oligouria
- 2) The use of dojok-san is changed by Dongmu' books
- 3) Hyungbangdojok-san is used in the superficial disease's pathology

Key Words : Hyungbangdojok-San, Prescription Formation, Dojok-san

I. 緒 論

『東醫壽世保元·辛丑本』¹은 東武의 理論體系와 處方의 최종판이고 비록 太陰人, 太陽人 편의 미비한 점을 東武 스스로 밝히고 있으나 少陽人, 少陰人 편은 東武가 밝힌 대로 略得詳備하였다. 荊防導赤散은 少陽人 表證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處方으로 少陽人 處方형성에

관해서는 배² 등의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 관한 研究와 한³ 등의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藥方에 관한 研究와 배⁴ 등의 少陽人 藥方의 형성 과정에 관한 研究가 있으며, 최⁵의 少陽人 荊防導赤散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가 있으나 荊防導赤散에 대한 문헌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없고 東武의 저작인 『東武遺稿』⁶, 『草本卷』⁷, 『甲午本』⁸, 『辛丑本』¹을 통틀어 모두 유사한 處方이 존재하여 이를 비교, 고찰하여 東武의 처방구성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에 본 연구에 임한다. 東武의 저작에서 導赤散의 변화를 통하여 東武의 초기저작인 『草本卷

• 접수일 2007년 2월 22일 승인일 2007년 4월 2일
• 교신저자 : 하진호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7-8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 사상체질의학과교실
Tel : +82-54-273-3033 Fax : +82-54-281-7464
E-mail : nobrain7@hanmail.net

』⁷의 導赤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과 『甲午本』⁸에서의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辛丑本』¹에서의 荊防導赤散의 처방 형성에 대한 몇 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에 의해 傳來의 韓醫學의 觀點이 아닌 새로운 체계로 형성된 의학으로 『東醫壽世保元·辛丑本』¹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이러한 새로운 觀點에 의해 형성된 病理體系와 處方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여러 東武의 저작 즉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⁷, 『東醫壽世保元·甲午本』⁸과 北韓 保健省 『東武遺稿』⁶, 藏書閣 『東武遺稿』와 『普濟演說』 등이 전해지면서 四象醫學의 새로운 病理體系와 處方이 단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荊防導赤散의 연원을 살펴보면 導赤散이 宋代 錢乙의 『小兒藥證直結』⁹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龔信的 『萬病回春』¹⁰에서는 導赤散, 導赤湯이 등장하게 된다. 東武가 導赤散을 『草本卷』⁷에 「少陽人編」에 導赤散과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을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활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甲午本』⁸에서는 千金導赤散과 柴胡瓜蒌湯을 少陽人

表證 病理에 큰 부분으로 활용하고 元明代醫家著述중에 경험방으로 『萬病回春』¹⁰에서의 導赤湯을 導赤散으로 기재한다. 『辛丑本』¹에서는 千金導赤散과 柴胡瓜蒌湯을 荊防導赤散으로 變方하여 활용하고 元明代醫家著述에 경험방으로 『甲午本』⁸의 導赤散을 기재한다. 이러한 荊防導赤散 유사 처방의 변화를 통해 荊防導赤散에 대한 東武의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1) 導赤散이 宋代 처음 등장하는 錢乙의 『小兒藥證直結』⁹에서의 導赤散과 『萬病回春』¹⁰의 導赤散, 導赤湯, 『東醫寶鑑』¹¹에서의 導赤散, 導赤湯의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2) 『東武遺稿』⁶의 導赤散, 『甲午本』⁸의 千金導赤散 및 柴胡瓜蒌湯과 『辛丑本』¹의 荊防導赤散의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3) 『草本卷』⁷의 導赤散과 『甲午本』⁸·『辛丑本』¹ 導赤散, 『甲午本』⁸의 千金導赤散과 柴胡瓜蒌湯, 『辛丑本』¹의 荊防導赤散의 약물 사용빈도 및 처방구성과 주치를 비교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할 板本의 名稱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定하였다.

1) 海東出版社板 『東武遺稿鬚編』는 『東武遺稿』라 稱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草本卷』이

Table 1. Early Medical Book's Comparative Prescription Formation (unit:錢)

	小兒藥證直結 導赤散	萬病回春 導赤湯	萬病回春 導赤散	東醫寶鑑 導赤湯	東醫寶鑑 導赤散
生地黃	1	1	1	1	1
甘草生	1	1	1	1	1
木通	1	1	1	1	1
竹葉	5	-	7篇	-	7片
滑石	-	1	-	1	-
黃柏	-	1	-	1	-
茯苓	-	1	-	1	-
枳殼	-	0.5	-	0.5	-
白朮	-	0.5	-	0.5	-
梔子	-	1	-	-1	-

라 稱하였다.

3) 『甲午本 東醫壽世保元』을 『甲午本』이라 稱하였다.

4) 『辛丑本 東醫壽世保元』을 『辛丑本』이라 稱하였다.

5) 『東醫四象新編』을 『四象新編』이라 稱하였다.

Ⅲ. 本 論

1. 『小兒藥證直結』^{9)의 導赤散을 중심으로 『萬病回春』^{10), 『東醫寶鑑』^{11)의 導赤散, 導赤湯의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導赤散은 宋代 錢乙의 『小兒藥證直結』^{9)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錢乙이 五臟辨證을 확정하고 心熱을 치료하는데 “治小兒心熱 視其睡 口中氣溫 或合面睡 及上竄咬牙 皆心熱也 心氣熱則心胸亦熱 欲言不能 而有就冷之意 故合面睡”라 하여 生地黃을 중심으로 心胸의 熱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였다. 龔信的 『萬病回春』^{10)에서는 먼저 “麻疹 ... 譫語溺肺者 導赤散”라 하여 導赤散을 心熱이 아닌 麻疹에 사용하는데 이는 錢乙의 導赤散의 활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導赤湯의 경우에는 「小便閉門」의 “小便不通者 多是熱結也. 導赤湯 治溺如米泔色 不過二服自愈”라 하여 滑石 黃柏 茯苓 梔子 등을 加하여 小便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활용하였다. 『東醫寶鑑』^{11)에서는 導赤湯은 「內景篇」에 1회, 導赤散은 「內景篇」 7회, 「雜病篇」 9회 총 16회에 등장하게 된다. 導赤湯은 「內景篇 小便門 “赤白濁 白濁... 導赤湯 皆宜 治尿如米泔色 不過二服愈”라 하여 『萬病回春』^{7)의 활용과 동일한 활용을 보인다. 導赤散 첫 번째로 「內景篇」 精門 “夢泄亦屬鬱 <綱目>曰 夢遺屬鬱滯者 ... 予知其有鬱滯 先用沈香和中丸下之 次用 加減八味湯 吞滋腎丸百丸 若與澀藥 則遺與濁 反甚 或一夜再遺 改用導赤散大劑 煎服 遺濁皆止.”라 하여 鬱症으로 인한 夢泄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內景篇」 心門 “心病治法 ... 心實 宜瀉心}}}}

湯 導赤散. 導赤散 雖治心熱 實小腸之藥也, ” 「內景篇 小腸腑門 “小腸病治法 導赤散 赤茯苓湯, ” 「雜病篇 火門 “心熱 其證 煩心 心痛 掌中熱 而腕 宜導赤散”라 하여 心과 小腸의 熱에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內景篇」 小便門 “小便不利 上盛下虛 小便赤澀 或欲成淋 宜清心蓮子飲方見消渴 導赤散 ” 「內景篇 小便門 “淋病有五 血淋 色鮮者 心與小腸 虛熱 導赤散 小便不利 去甘草 加黃芩 ” 「內景篇」 小便門 “淋病有五 熱淋 小便熱 赤色 淋瀝不快 臍下急痛. 滋腎丸百丸 以加梔子 導赤散 煎水 吞下 空心, ” 「內景篇 小便門 “莖中痒痛 精竭不痛 莖痒者 入味丸, 熱盛莖中澀痛 導赤散 加梔子 大黃 ”라 하여 小便不利, 血淋, 熱淋, 莖中痒痛에 사용하였다. 네 번째는 「雜病篇」 小兒門 “夜啼 熱則心躁而啼 面赤 小便赤 口中熱 腹煖或有汗 仰身而啼 又曰 上夜半仰身有汗而啼 面赤身熱者 必痰熱也 到曉方息 導赤散加黃芩煎服 通心飲 亦可, ” 「雜病篇」 小兒門 “心主驚 心實 發搐難言 合面而臥 煩熱 故上竄舌強 咬欲言 不能而叫哭 胸熱 故合面而臥 就涼 宜瀉心湯 導赤散. ” 「雜病篇」 小兒門 “腎主虛 心氣熱則 上竄 宜導赤散 腎氣虛則下竄 宜地黃元, ” 「雜病篇」 小兒門 “驚搐之證有五 因潮熱發搐 在巳午未時者 心旺也 ... 治心導赤散, ” 「雜病篇 小兒門 “諸熱 心熱 口中氣溫 或合面臥及眼上竄 額赤搖頭 咳牙 導赤散主之”라 하여 小兒의 夜啼, 驚, 驚搐 등의 錢乙이 언급한 小兒의 心熱에 의한 증상에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는 雜病篇 小兒門 痘瘡治法 有大熱者 當利小便 宜導赤散, 「雜病篇」 小兒門 驚搐 痘毒驚搐 心肝熱也... 利小便則熱不炎 宜導赤散, 「雜病篇」 小兒門 尿澀痘疹 小便澀者 宜導赤散(海藏)라 하여 『萬病回春』^{10)의 활용과 같이 痘瘡에 利小便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위의 비교를 통해 『東醫寶鑑』^{11)에서 導赤湯의 경우 『萬病回春』^{10)과 같이 小便에만 활용되고 導赤散의 경우는 鬱症으로 인한 夢泄, 心과 小腸의 熱, 小便不利, 血淋, 熱淋, 莖中痒痛 小兒의 夜啼, 驚, 驚搐, 痘瘡 등 『小兒藥證直結』^{9),}}}

『萬病回春』¹⁰에 비해 넓은 활용범위를 가짐을 알 수 있고 이는 生地黃, 木通 등으로 心의 熱을 小便을 통해 배출하는 것과 心熱로 인해 나타나는 小兒의 夜啼, 驚, 驚搐의 증상과 『萬病回春』¹⁰에 활용된 痘瘡의 증상을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2. 『東武遺稿』⁶의 導赤散, 『甲午劄』⁸의 千金導赤散 및 柴胡瓜蒌湯과 『辛丑本』¹의 荊防導赤散의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1. 『東武遺稿』⁶에 "少陽危症 ...大小便不通 雖是二症 而大便通 則小便自通也 病輕者 先通小便 四苓散 導赤散主之 病重者 先通大便 甘遂芫花主之."라 하여 導赤散을 활용하였다.

2.1 『甲午本』⁸에서는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脉微而惡寒者 ... 此證 大便 過一晝夜有餘而不通者 當用 白虎湯. 大便 不過一晝夜有餘而通者 當用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라 하여 裏證病證의 太陽病에 千金導赤散과 柴胡瓜蒌湯"를 사용한다.

2.2 『甲午本』⁸에서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今考更定 已上諸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荊防敗毒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此證 嘔者 裡熱上逆也 當用 千金導赤散. 寒熱往來者 陰氣凝聚膈間 未降或降故 其證 寒多熱少

而雖則鋼寒 時亦發熱也 當用 荊防敗毒散... 口苦咽乾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最重證也 不可不急治 當用 柴胡瓜蒌湯 三四服 又連日服. 胸脇滿者 結胸之漸也. 寒熱往來胸脇滿而 大便 不過一晝夜有餘者 當用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大便 過一晝夜有餘者 當用 柴胡瓜蒌湯 加石膏一錢 至於二晝夜則 當用 白虎湯... 短氣喘促者 膀胱不足之竭勢也 不急治 必危 當用 柴胡瓜蒌湯 千金導赤散. 日三四服又連日服 結胸者 當用 甘遂散而 硬滿關格之勢稍緩則 當用 柴胡瓜蒌湯. 寒勢往來脇下硬滿者 當用 千金導赤散 發熱惡寒身痛煩躁者 當用 荊防敗毒散."라 하여 少陽傷風과 結胸에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을 사용하고 병이 진행되어 便閉시에는 柴胡瓜蒌湯加石膏, 白虎湯을 사용한다.

2.3 『甲午本』⁸에서 "朱肱曰 凡發汗 腰以上雖淋漓而 腰以下至足 微潤則 病終不解. 今考更定 傷寒病 有再通三痛而愈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三痛發汗也 少陽人 頭痛腦強寒熱往來 尤甚之病 元來如此 表邪深結故 至於三痛然後方解也 初痛 當用 荊防敗毒散 二貼連服 再痛 又二貼連服 不痛日與不甚痛日則 當用 柴胡瓜蒌湯 千金導赤散."라 하여 傷寒의 再痛三痛에 荊防敗毒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을 사용한다.

2.4 『甲午本』⁸에서 "論曰 此證 不惡寒者 非表解也 .病益甚也 汗出短氣者 非但裡未和也 病

Table 2. The Text Comparison in Dongmu Books

書籍	東武遺稿	甲午本	辛丑本
原文	少陽危症 →導赤散	裏證病證의 太陽病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少陽傷風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柴胡瓜蒌湯加石膏, 白虎湯 再痛三痛 傷寒 →荊防敗毒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結胸 →甘遂 柴胡瓜蒌湯 柴胡瓜蒌湯合白虎湯 瘧病 →柴胡瓜蒌湯	少陽傷風 →荊防導赤散 再痛三痛 傷寒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結胸 → 荊防導赤散 加白茯苓 澤瀉

Table 3. Medical Herb's Frequency in Use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
生地黃	27	14	10
木通	11	4	3
黃連	10	6	4
柴胡	15	8	1
山茱萸	22	6	5
覆盆子	10	7	2
梔子	6	4	2
黃柏	15	3	3
茯苓	29	6	10
玄麥	10	2	3
瓜蒌仁	9	2	1
前胡	13	3	2
苦麥	8	6	3
荊芥	21	4	11
防風	23	3	13
羌活	23	5	8
獨活	19	4	7
滑石	4	3	2

在險也 燥渴譫語者 非但結胸也 病在危也 水入即吐者 非但水逆也 此亦結胸也 結胸故 水逆不吐也 此證 水逆還吐而結胸者 表裡氣猶壯而 其勢最急 不可不急用 甘遂 直攻痰水燥氣壅結之處所也 汗出短氣而結胸者 當用 柴胡瓜蒌湯. "라 하여 結胸에 甘遂와 함께 柴胡瓜蒌湯, 柴胡瓜蒌湯合白虎湯을 사용한다.

2.5 『甲午本』⁸에서 "少陽人瘧病 有間兩日而發者 卽 勞瘧也 可以緩治 不可急治 此證 瘧不發日 午後 每用柴胡瓜蒌湯一貼 瘧發日 惡寒時 每用荊防敗毒散一貼 一月之內 以柴胡瓜蒌湯二十貼 荊防敗毒散 十貼 爲準의則 其瘧 必無不退之理 "라 하여 瘧疾에 柴胡瓜蒌湯을 사용한다.

3.1 『辛丑本』¹에서는 "張仲景曰 眩而 口苦舌乾者 屬少陽. 口苦 耳聾 胸滿者 少陽傷風證也.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論曰 此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라 하여 少陽人의 少陽傷風에 荊防導赤散을 사용한다.

3.2 『辛丑本』¹에서 "少陽人 傷寒病 有再痛發

汗而 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再痛發汗 三痛發汗也. 少陽人 頭痛 腦強 寒熱往來 耳聾 胸滿 尤甚之證 元來如此 表邪深結 至於三痛然後 方解也. 無論初痛再痛三痛 用 荊防敗毒散 或 荊防瀉白散 或 荊防導赤散 每日二貼式 至病解而用之 病解後 又用十餘貼 如此則 自無後病而完健. "라 하여 傷寒의 再痛三痛에 荊防導赤散을 사용한다.

3.3 『辛丑本』¹에서 "凡結胸病 皆 藥湯入口 輒還吐 惟 甘遂末 入口 口涎含下 因以溫水 漱口而下則 藥不還吐 嘗治結胸 用甘遂散 溫水調下 五次輒還吐 至六次不還吐而 下利一度. 其翌日 又用甘遂 一次通利而 病愈. 凡結胸 無非險證 當先用 甘遂 仍煎荊防導赤散 以壓之. 乾嘔短氣而 藥不還吐者 不用 甘遂 但用 荊防導赤散 加白茯苓 澤瀉 各一錢 二三服 又 連日服而 亦病愈. 燥渴 於者 尤極險證也 急用 甘遂 仍煎地黃白虎湯 三四貼 以壓之 又 連日服 地黃白虎湯 "라 하여 結胸에 荊防導赤散 加 白茯苓 澤瀉하여 導赤降氣湯을 사용한다.

『東武遺稿』⁶에서의 導赤散의 활용은 大小便 不通時에 小便을 통하게 하는 『甲午本』⁸ · 『辛丑

本』¹에 인용된 『萬病回春』¹⁰의 導赤散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甲午本』⁸에서 少陽傷風, 再痛三痛, 結胸에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柴胡瓜蒌湯 加石膏를 사용함에 千金導赤散과 柴胡瓜蒌湯을 병의 경중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고 便閉時에는 柴胡瓜蒌湯에 加石膏하여 사용하였던 것이 『辛丑本』¹에서는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導赤降氣湯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少陽人의 表證의 清裏熱而 降表陰의 治法을 확립하고 『甲午本』⁸에서의 千金導赤散과 柴胡瓜蒌湯의 단순한 경중에 의한 사용이 『辛丑本』¹에서는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導赤降氣湯으로 세분화 되어 表證에 대해서는 荊防導赤散을 주로 하고 열증이 심한 경우 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結胸의 경우는 導赤降氣湯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甲午本』⁸에서의 裏證病證의 太陽病에 『辛丑本』¹에서 荊防瀉白散과 地黃白虎湯을 사용하는 것과 瘧疾에 『辛丑本』¹에서 獨活地黃湯 사용하는 것은 임상경험을 통해 처방의 변화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3. 『草本卷』⁷의 導赤散과 『甲午本』³·『辛丑本』¹ 導赤散, 『甲午本』⁸의 千金導赤散과 柴胡瓜蒌湯, 『辛丑本』¹의 荊防導赤散의 약물 사용 빈도 및 처방구성과 주치를 비교한다.

1. 少陽人의 대표적인 주약물인 生地黃과 熟地黃은 『甲午本』⁸과 『辛丑本』¹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草本卷』⁷ 38처방 중 生地黃은 27회 사용되고 熟地黃은 5회 『甲午本』⁸ 新定方에서는 17처방중 14회에 生地黃이 14회 사용되고 熟地黃이 水火既濟湯에서 1회만 사용되나 『辛丑本』¹으로 改抄되면서 生地黃은 17처방중 10회로 사용되어 빈도가 줄게 되고 熟地黃은 4회 사용되어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甲午本』⁸에서는 生地黃은 주로 山茱萸와 覆盆子와 약물배합을 이루어 약한 臟을 보완하는 초기의 생각이 보이며 『辛丑本』¹에서는 生地黃이 배합된 처방에서는 忍冬藤地骨皮湯에서 1회만 山茱萸 覆盆子와 약물배합을 이루고 주로 熟地黃 山茱萸의 약물배합을 이룬다. 이를 통해 東武가 『甲午本』⁸의 生地黃은 주로 山茱萸와 覆盆子와 약물배합을 이루는데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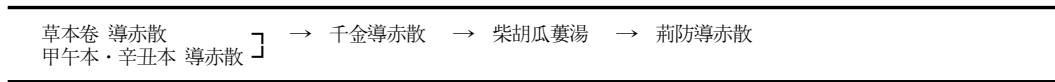
Table 4. Dongmu Book's Comparative Prescription Formation (unit:錢)

	草本卷 導赤散	甲午本·辛丑本 導赤散	草本本·甲午本 千金導赤散	草本本·甲午本 柴胡瓜蒌湯	辛丑本 荊防導赤散
生地黃	3	1	4	4	3
木通	2	1	2	2	2
黃蓮			2	1	
柴胡			2	1	
山茱萸			2	1	
覆盆子			2	1	
梔子		1			
黃柏		1			
赤茯苓		1			
玄蔘					2
瓜蒌仁				2	1.5
前胡				1	1
苦蔘				1	
荊芥					1
防風					1
羌活					1
獨活				1	1
滑石		1			

Table 5. Dongmu Book's Comparative Medical Treatment

主治	
草本卷 導赤散	治外感內熱 其證 目赤 頭痛 小便赤澁『草本卷』
甲午本 辛丑本 導赤散	尿如米泔色 不過二貼效『四象新編』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表證 寒熱往來 大小便 過 一晝夜不利者『四象新編』 治寒熱往來 汗出 短氣 譫語 結胸 咽乾 目眩 耳聾『四象新編』
荊防導赤散	治頭痛 胸膈煩熱者 宜用『辛丑本』 治 少陽頭痛 結胸 及 胸膈煩熱『四象新編』

Table 6. Hyungbangdojok-san's Making Process



脆弱한 臟腑를 보완하기 위한 초기의 생각으로 보이며 『辛丑本』¹에서 改抄되면서 이러한 사고는 사라지고 『辛丑本』¹에 이르러서는 生地黃과 熟地黃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柴胡는 『草本卷』⁷에서는 38처방 중 15回, 『甲午本』⁸에서는 17처방 중 8回, 『辛丑本』¹에서는 17처방 중 荊防敗毒散에서 1回만 사용되게 된다. 東武가 『甲午本』⁸에서 少陽傷風의 病理에 모두 柴胡가 있는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을 사용하였으나 『辛丑本』¹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甲午本』⁸에서 少陽病症에 柴胡를 활용을 하였으나 淸裡熱而 降表陰의 治法이 확립된 『辛丑本』¹에서는 柴胡의 활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의 경우 『草本卷』⁷에 荊芥 21회, 防風 23回, 羌活 23回, 獨活 19회로 사용빈도가 많다가 『甲午本』⁸에서는 荊芥 4回, 防風 3回, 羌活 5回, 獨活 4회로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辛丑本』¹에서는 荊芥 11回, 防風 13回, 羌活 8回, 獨活 7회로 사용빈도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을 동시에 활용한 예는 『甲午本』⁸에서는 荊防敗毒散, 防風通聖散 2회이나 『辛丑本』¹에서는 荊防敗毒散, 荊

防導赤散, 荊防瀉白散, 豬苓車前子湯, 滑石苦麥湯, 荊防地黃湯 6회로 表證의 處方에 모두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東武가 『辛丑本』¹에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荊防 大清胸膈散風 羌獨大補膀胱眞陰"라 밝힌바와 같이 降表陰에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의 약물배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草本卷』⁷ 導赤散은 生地黃, 木通을 사용하여 目赤 頭痛 小便赤澁을 치료하였고, 『甲午本』⁸ · 『辛丑本』¹ 導赤散은 生地黃 木通을 減하고 梔子, 黃柏, 茯苓, 滑石의 利小便劑를 加하여 尿如米泔色의 小便治療에 치중한다. 『甲午本』⁸에서 千金導赤散은 『草本卷』⁷ 導赤散에 生地黃 木通을 增하고 柴胡, 黃蓮, 山茱萸, 覆盆子를 加하여 表證 寒熱往來 大小便 過 一晝夜不利에서는 柴胡瓜蒌湯은 千金導赤散에 柴胡, 黃蓮, 山茱萸, 覆盆子을 減하고 瓜蒌仁 前胡 苦麥 獨活을 加하여 千金導赤散에 비해 重症으로 結胸으로 진행되는 寒熱往來 汗出 短氣 譫語 結胸 咽乾 目眩 耳聾의 병증에서 사용한다. 이후 『辛丑本』¹에서 荊防導赤散은 柴胡瓜蒌湯에 生地黃, 木通을 減하고 玄麥을 가하여 頭痛 結胸 及 胸膈煩熱에 사용한다. 또한 結胸에 荊防

導赤散에 茯苓 澤瀉를 가하여 導赤降氣湯을 사용한다.

主治證에서는 초기의 導赤散, 導赤湯은 治外感內熱 其證 目赤 頭痛 小便赤澁, 尿如米泔色 등의 主治에서 『甲午本』⁸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에서는 寒熱往來와 少陽病症에 치중하고 結胸과 大小便不利를 치료하는데 반해 『辛丑本』¹ 荊防導赤散, 導赤降氣湯에서는 少陽頭痛 結胸 胸膈煩熱 氣痰及莖中痛 등의 少陽病症의 해석이 胸膈의 熱과 降陰不利과 인한 表陰의 정체로 인한 증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IV. 結 論

1. 導赤散은 錢乙의 『小兒藥證直結』⁹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萬病回春』¹⁰, 『東醫寶鑑』¹¹에서 鬱症으로 인한 夢泄, 鬱症으로 인한 夢泄, 心과 小腸의 熱, 小便不利, 血淋, 熱淋, 莖中疼痛 小兒의 夜啼, 驚, 驚搐, 痘瘡 등의 다양한 임상예를 보이고 導赤湯은 『萬病回春』¹⁰에 처음 등장한 이후 『東醫寶鑑』¹¹에서 溺如米泔色 不過二服自愈의 비교적 단편적인 小便의 문제에 사용되었다.

2. 東武는 『草本卷』⁷에서 導赤散과 導赤湯의 처방을 기재하였으나 『東武遺稿』에 傷寒陽證, 少陽危症에서 導赤湯의 증례와 같은 小便에 문제에 국한된 사용을 보이고 『甲午本』⁸에서는 裏證病證의 太陽病, 少陽傷風, 再痛三痛 傷寒, 結胸, 瘧病的 다양한 병증에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을 활용하였다. 『辛丑本』¹에서는 少陽人의 少陽傷風의 病症을 확립하고 表證의 清裡熱而 降表陰의 治法을 완성하고 少陽傷風, 再痛三痛 傷寒, 結胸 등의 病症에 荊防導赤散, 導赤降氣湯을 활용한다.

3. 主治證에서는 初期의 導赤散, 導赤湯이 주로 小便의 문제에 사용되고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에서는 寒熱往來와 少陽病症에 치중하고 結胸과 大小便不利를 치료하는데 반해 荊防導赤散은 胸膈의 熱과 降陰不利과 인한 表陰의 停滯로 인한 증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4. 東武가 초기에는 生地黃 木通의 導赤散을 사용하고 이에 柴胡, 黃蓮, 山茱萸, 覆盆子를 加味하여 千金導赤散을 만들고 이를 少陽傷風 初症에 사용하고 이에 結胸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瓜蒌仁, 前胡, 苦參, 獨活을 加味하여 少陽傷風 重症에 柴胡瓜蒌湯을 사용하고 表陰降氣의 이론을 확립하여 荊芥, 防風, 羌活, 獨活에 降陰不利의 痰을 치는 前胡, 瓜蒌仁과 清熱의 生地黃 玄參을 사용하는 荊防導赤散을 확립한다.

5. 위의 荊防導赤散의 형성과정을 볼때 東武의 處方과 理論이 단순히 『辛丑本』¹의 하나의 형태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東武의 여러 저작에서 밝혀져 있듯 여러 가지 理論과 處方의 수정을 통해 완성된 것임을 알아 東武의 理論과 處方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臨床 활용에 있어서도 활용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하겠다.

IV. 參考文獻

1. 全國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2판. 集文堂, 서울, 2002:682-684, 699-701.
2. 배효상, 박성식. 少陽人 藥方의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 33-51.
3. 한경석, 박성식.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藥方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74-93.
4. 배효상, 박성식.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12-26.
5. 최병일. 少陽人 荊防導赤散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0;2(1): 167-176.
6. 李濟馬著, 량병무, 차광석釋. 東武遺稿鬚編. 海東出版社, 서울, 1999:194-196, 205-207.
7. 李濟馬, 朴性植釋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310, 320.
8. 李濟馬, 金達來編釋.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도서출판 木과土, 서울, 2002:129-138, 140-141,

- 185, 191.
9. 錢乙著. 金達鎬釋 小兒藥證直結. 醫聖堂, 서울, 2002:112-113.
 10. 龔信著. 朱甲憲著 國譯萬病回春. 癸丑文化社, 서울, 1977:345, 497.
 11. 許浚著. 元秦喜, 黃忠淵, 金敬堯, 宋峰根, 金哲源, 成疆慶, 安秀基, 邊宰煥, 權榮烜點校. 正校東醫寶鑑. 한미의학, 서울, 2001:23, 134, 159, 196, 203, 204, 210, 657, 1028, 1029, 1031, 1048, 1061, 1071.
 12. 元持常. 金正烈編釋. 東醫四象新編. 도서출판 정담, 서울, 1999:131-132, 158, 169, 170.